

# ‘학교위상 낮다’ 83.3% … 졸업생 절반만 신행활동

본사-동국대 총동창회 공동 설문조사

## 불교대학·불교대학원 졸업생 226명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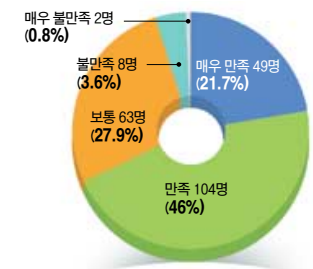
동국대 불교대학 및 불교대학원 졸업생들은 2006년 개교 100주년을 맞는 모교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대학본부의 경영능력 부족·재단내부의 다툼·중단의 무관심'을 꼽았다.

본사와 동국대 총동창회가 12월 5일부터 20일까지 불교대학과 불교대학원 졸업생 1000여명을 대상으로 '동국 100년 한국불교 100년'이라는 주제로 우편 및 전화 설문조사 실시한 결과, 226명(출가자 58명, 재가자 168명)의 응답자가 이같이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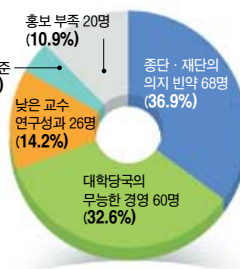
응답자중 현재 동국대의 위상이 낮다고 보는 원인을 묻는 질문에 출가자의 31.0%와 재가자의 39.2%는 대학본부의 경영능력 부족'을, 출가자의 27.6%와 재가자의 32.1%는 재단내부의 다툼을, 출가자의 31%와 재가자의 20.2%는 중단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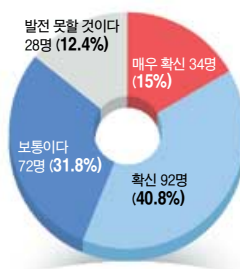
### ‘동국대 졸업’에 대한 자긍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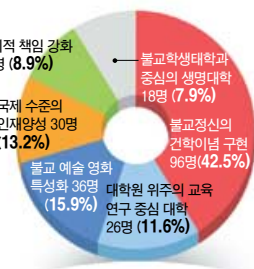
### 동국대 위상이 낮은 원인



### 동국대 비전에 대한 확신



### 발전목표 어디에 뒤야 하나



### ■ 위상 낮지만 자긍심은 높아

응답자의 83.3%인 184명은 한국사회에서 동국대의 위상이 '낮다'고 평가했다. 학교 위상이 높다는 응답은 42명(18.6%)에 불과했다. 학교 위상이 '높다'는 응답은 출가자의 24.1%(14명)인 것에 비해 재가자는 16.7%인 28명으로 비슷했다. 출가자의 75.9%인 44명이, 재가자는 83.3%인 140명이 '낮다'고 답

### ■ 재단의 안정과 중단지원 필요

동국대 발전을 위해 우선 해결과제로 재단의 안정(29.1%, 66명)과 중단의 지원(19.5%, 44명), 제 3캠퍼스등 교육여건 확충(18.6%, 42명), 적극적 홍보와 학교의 위상 강화(18.6%, 42명) 구성원들간의 화합(14.2%, 32명)등을 꼽았다. 출가자들은 구성원들간의 화합(25.9%,

55.8%(126명)는 학교가 발전할 수 있다는 비전이 있다고 확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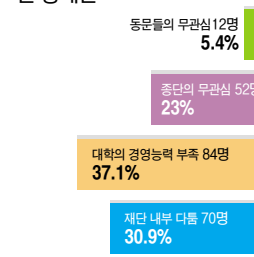
졸업생들은 동국대의 비전에 대해 '매우 확신한다(15%, 34명)', '확신한다(40.8%, 92명)', '보통(31.8%, 72명)'이라고 응답했다.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12.4%(28명)에 불과했다. 비전 확신에 대해 출가자(48.3%, 28명)보다 재가 졸업생의 57.2%(96명)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또 학교의 발전목표를, 불교정신의 건학이념 구현(42.5%), 불교 예술 등 특성화(15.9%), 국제수준의 뛰어난 인재양성(13.2%), 대학원 위주의 교육 연구중심대학 전환(11.6%)을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 ■ 졸업생 종교 변화없어

한편 동국대 불교대학 재가 졸업생들은 현재 45.2%(76명)가 불교 신행활동(신도회, 사찰봉사)을 정기적으로 하고

### 발전의 가장 큰 장애는



있으며, 42.8%(72명)는 기회가 될 때만, 12%(20명)는 신행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대학 졸업 후 97.6%(164명)는 종교의 변화가 없으며, 배우자의 종교는 84.5%(142명)가 같다, 15.5%(26명)가 다르다고 답했다.

김원우·유철주 기자

## 중단·재단 의지빈약·내부 다툼 발전 저해 요인

### ‘구성원간 화합 통한 안정’ 시급한 과제로 꼽아

### 발전 동력, ‘불교계 지원’ ‘특성화된 학문’ 順

### ‘동국대 졸업 자랑스럽다’ 67.7%, ‘미래 밝아’ 55.8%

했다. 위상이 낮은 원인에 대해 중단과 재단의 의지빈약 36.9%(68명), 대학당국의 무능한 경영 32.6%(66명), 낮은 교수 연구성과 14.2%(28명), 홍보부족 10.9%(20명), 낮은 학생수준 5.4%(10명) 순으로 꼽았다.

출가자들의 41.1%인 18명이 대학당국의 무능한 경영을, 재가자의 41.4%인 58명은 중단과 재단의 의지빈약을 위상저하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동국대의 위상이 높다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출가자를 막론하고 '불교계 중립학교이기 때문 54.7%(23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응답자들은 동국대를 졸업한데에 대한 자긍심은 높아 매우만족(21.7%)만족(46%) 보통(27.9%) 불만족(3.6%) 매우불만족(0.8%) 순이었다. 출가자는 42명인 72.5%가, 재가자는 110명인 65.6%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12명)을, 재가자들은 재단의 안정(32.1%, 54명)을 1순위로 선택했다.

동국대 발전을 위한 불교 역할에 대해서는 27.5%(62명)가 재정적 기여, 23%(52명)가 대학경영에 자율성부여, 21.2%(48명)가 불교정신이 함양된 인재양성을 우선순위에 올렸다. 출가자들의 20.6%(12명)가 졸업생들의 사회·불교계 일자리 알선을 꼽은 반면 재가자들의 29.8%(50명)는 재정적 기여라고 진단했다.

동국대 발전의 가장 큰 동력으로는 불교계의 지원(38.9%, 88명), 경찰행정·연극영화 등 학문 특성화(27.5%, 62명), 왕성한 동문들의 지원(20.4%, 46명)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 ■ 건학이념 구현이 발전요력

동국대 불교대의 학부 및 대학원 졸업

### 기본 분류 문항(응답자 특성표)

1.성별 ①남 162(71.6%)	②여 64(28.4%)
2.나이 ①20~29세 26(11.6%)	②30~39세 34(15.0%)
③40~49세 44(19.5%)	④50~59세 54(23.9%)
⑤60세이상 68(30.0%)	
3.직업 ①회사원 23(10.2%)	②공무원 7(3.0%)
③자영업 26(11.6%)	④종교인 62(27.5%)
⑤전문직 38(16.8%)	⑥예술가 0(0.0%)
⑦무직 24(10.6%)	⑧기타 46(20.3%)
4.출·재가여부 ①출가 58(25.6%)	②재가 168 (74.4%)
5.현재의 종교 ①불교 224(99.2%)	②원불교
③개신교	④가톨릭
⑤유교	⑥민족종교
⑦무교 2(0.8%)	⑧기타

謹賀新年 佛紀 2550年 丙戌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예

## (재)명원문화재단



이사장 김의정

임원 일동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1-272 전화 02)730-7191 ~ 2 / 팩스 02)736-6332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상표등록 : 614981호  
의장출원 : 제35872

## 수제화로 제작 滿 行 靴 化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h3>사계절 단화</h3> <p>가벼운 무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격 : 80,000원</li> <li>• 색상 : 회색, 흑</li> <li>• 규격 : 215~290mm</li> </ul>	<h3>방한용 털신</h3> <p>털 깎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격 : 60,000원</li> <li>• 색상 : 회색, 흑</li> <li>• 규격 : 215~290mm</li> </ul>	<h3>기능성 저압 깔창</h3> <p>(동) 발냄새 무효방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격 : 215~290mm(크기에 따라 조절가능)</li> <li>• 가격 : 20,000원</li> </ul>
--	--	--

**좋은점**  
만행 표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무대중의 선택, 발 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물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닥 깔창은 특수 환공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무대중님의 발관리에 도움을 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용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 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주문전화 :**  
02)927-5715, 011-9000-5715  
(보사용으로 10쪽이상 주문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제품을 받아보시고 구입결정 송금하세요

# 역사정립, 자긍심 높인다

## 동국대 100주년 기념사업 무엇이 있나?

올 5월 8일 동국대(총장 홍기삼)가 역사적인 건학 100주년을 맞아 '뿌리다지기'와 열매가꾸기 불사에 나선다.

100주년 기념사업회사업본부(본부장 조연은)는 올해 4·5·6월을 전후로 7개 분야 40여건의 기념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추진될 개교기념 사업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1906년 '명진학교' 개교에 앞장섰던 16개 '중법산(中法山·오늘날의 교구 본사)'에 대한 재조명이다. 우선

롯데 불교학 관련 10여건의 학술대회와 총서편찬도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대의협력팀 윤동규 팀장은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동국대가 100주년을 맞았다는 것은 현대사적으로도 의미가 크다"며 "올해 추진될 동국대 100주년 기념사업들은 국민들과 불자들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수많은 기념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동



- ### 100주년 기념 주요사업
- 건학이념 구현** △남한 건학기여 사찰기념비 건립 △북한 건학기여 사찰 방북 법회 △전통등 전시회 △100주년 기념 수계 대법회
  - 100년 역사정립** △100년사 편찬 △100년 사료 전시회 △자랑스러운 동국인 선정 △타임캡슐 봉안 건립 △서울캠퍼스 정문 상징조형을 설치 △경주 100주년 기념 본관건립(2007) △경주 민자 기숙사 건립(2007)
  - 학술(번천) 행사** △건학정신과 불교교육의 근대화 학술세미나(불교대학) △지식기반 사회와 불교생태학 국제학술대회 △우리말 불교개념사전·불교생태학총서·석전 박한영 전집·동국시인전집·박물관도록 발간 △동국파워엘리트 양성 프로젝트(2007)
  - 기념행사** △건학 100주년 기념식 △100주년 열린음악회 △박물관 소장 유물 특별전 △시화전
  - 홍보·모금** △기념유료발행 △홍보영화제작 △미레 캠퍼스 모형전시

## 5월 8일 기념일... 100년사誌 편찬·학술대회 등 건학 기여 남·북한 16개 본사에 기념비 건립

남한지역의 송광사 금산사 용주사 마곡사 해인사 법주사 통도사 동화사 월정사 봉선사 봉은사 11곳에 기념비를 세운다. 또 북한지역의 보현사 신광사 유점사 석왕사 귀주사 5곳에서도 방북법회 봉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지역 건학기여 사찰에 대한 방북법회는 남북 당국의 정책적 조정을 거쳐야 하는 탓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역사정립을 위한 '100년사誌' 편찬과 '자랑스러운 동국인'도 선정한다. 뿐만 아니라 정문 앞 상징조형을 설치, 경주 100주년 기념관 기공 등 대형불사를 비

국대 구성원들의 노력과 많은 기업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특히,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 전반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도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국대는 지난해 11월 23일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각계 동문들과 동국가족 10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두드림(Do dream)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동국대는 대학의 마스터플랜을 공개하고 2010년까지 100년 동국의 희망과 비전을 끌어 모으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a.com



동국대의 전신인 '명진학원'의 이름을 딴 명진관과 동국대 상징인 원코끼리상.

## 동국대 발전을 위한 제언

### 우리의 무대는 세계

류주형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장)



우리 동국대가 올해 건학 100년을 맞이한다.

1906년, 불교 선각자들이 교육과 학문언론으로 구국하겠다는 일념으로 삼보의 정재를 모아 동국을 열었던 때로부터 올해가 1세기가 되는 것이다.

나 스스로도 이렇게 역사적인 해에 20만 동문을 대표하는 총동창장을 맡고 있다는 것은 여간 부담스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서울토박이인 나는 1957년 동국대 농학과를 마치고 61년에 대학원 석사까지 마쳤다. 인생의 가장 절고 꿈 많았던 시절인 20대 초중반을 목격산(남산)자락에서 평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동국인이라는 자부심을 키우며 살았다. 지금 나 역시 70살을 넘긴 나이지만 불교와의 인연에서부터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동국대가 아니었으면,

나 불자들에게 적지 않은 우려를 던져 주고 있다.

해가 갈수록 과거 명문 사학으로서의 위상은 퇴색해 가고 침체와 무기력이 사지를 짓누르는 듯하다.

하지만 우리는 무수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세계 속에 우뚝 설 동국대학교를 위해 우리 동국인들의 힘을 모아 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민족 사학인 동국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우리 동문들과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한다. 학교 구성원들만의 축제가 아닌 동국인들과 불자들, 그리고 일반 사대부층이 동국 100년을 축하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

### 동문 불자 한뜻으로 학교발전 논의할때

### 100년 전통 뿌리삼아 건학이념 꽃피울 것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그렇기에 나를 낳고 길러 준 부모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내가 있게 만든 모교 동국대에 대한 애정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한다.

돌이켜보면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국의 역사는 한마디로 탁류를 물아내고 청파를 끌어들이는 격탁양청(激濁揚清)의 역사였다.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독립을 꿈꾸는 젊은 인재들의 요람이었고, 4·19를 비롯해 유신독재에 항거하는데도 늘 선봉에 앞장서왔다. 아직도 정치 경제 문화 곳곳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문들의 결집력은 어려웠던 시기에도 끈끈한 신뢰와 동지애로 선·후배간의 유대를 키워왔던 까닭이다.

건학 100주년을 맞은 올해는 이러한 '동국의 맥'을 전 세계로 힘차게 뻗어나가야 할 때다. 지금까지 동국의 역사를 정(靜)의 역사라 한다면, 앞으로의 동국은 동(動)의 역사가 되어야 한다. 요즘은 하루가 과거 10년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우리 한반도에서가 아닌 세계를 무대로 경쟁을 해야 하는 시기다. 그러나 최근 모교의 모습은 동문들이

둘째, 모든 동국대학교 학생들이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여 우리의 교훈인 심심, 신실, 자애, 도세를 바탕으로 지리행과 이타행을 실천할 수 있는 동국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배들에 대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야 한다. 우리 총동창회는 장학기금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셋째, 동국대의 총동창회관 건립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총동창회관 건립은 몇몇 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20만 동국인과 불자들, 일반 대중들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넷째, 동국인 개개인이 자긍심을 가지고 개인의 발전을 이루면 이것이 모여 우리 동국의 발전이다. 모두가 동국대라는 이름 아래 사회와 우리나라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2006년의 동국은 사고의 혁신과 과감한 변화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발전시키는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을 권한다.

날이 아닌 나, 내가 먼저 100주년을 맞는 동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준비할 때 모교는 물론 한국불교의 앞날이 밝게 열릴 것이다.

## 丙戌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손누리에

### 財團法人 世界佛教法王廳 平和財團

World Buddhist Supreme Tathagata Followers Peace Foundation, Inc

總務總正 滄井 羅明國 理事長 曇華 李存榮 後援會長 許珍



- 재 단 주 소: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76번지 귀빈빌딩 5층
- 법왕청 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송리 448번지(법왕청)
- 전화 02)3216-3216 / 팩스 02)379-7676 / 인터넷 Wbstf.com
- 전화 031)377-1081 / 팩스 031)376-1081